

기억, 근원, 그리고 이탈된 이미지들: 이민호의 휴대용 풍경

고동연 (미술사)

현대인들은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중 삼중으로 재현되고 또 재현된 이미지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과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풍경들을 얼마만큼 제대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민호의 사진 작업에서 공장 굴뚝, 잔디를 심은 상자, 깃발, 바닷가 등의 풍경 이미지들은 원래의 시-공간적인 맥락으로부터 이탈하여 다양한 배경에 반복, 중첩되어서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객들은 정확히 어떤 이미지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으며, 인터넷에 떠다니는 수많은 이미지들처럼 이민호의 ‘휴대용 풍경’은 고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휴대용 자화상’ 시리즈에서도 작가의 코, 발, 손등 신체의 부분들과 그녀가 소장한 액세서리들만이 나열되어 있다. 게다가 작가는 관객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리거나 돌리고 있다. 작가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얼굴이 삭제된 채로 나머지 부분들만이 부각되어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근원(origin)을 잃어버린 풍경과 자화상들은 소위 문학 비평, 특히 프랑스에서 말하는 미궁 혹은 심연의 상태(*mise en abîme*)에 이른다. 이미지가 수없이 반복되고 복사되며 반사되어 어느 것이 원본인지 복사판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그 출처마저도 묘연해지게 된다.

풍경을 옮기다.

이민호의 ‘휴대용 풍경’ 시리즈 이래로 변형된 각종 모양의 상자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풍경들을 전혀 다른 맥락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하얀 소파가 위치한 풍경은 말라비틀어져서 갈라진 초현실적인 풍경 위에 혹은 공사판 앞에 위치해 있다. 푸른 하늘의 정경을 담은 상자는 또 다른 하늘의 정경이 액자 너머로 보이는 이미지 앞에 놓여있다. 즉 상자는 이민호 작업에서 이동식 풍경화를 만들어 내는 주요 운송 수단이다.

예를 들어 작가가 프랑스에서 거주할 당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매일 아침마다 바라보던 공장 굴뚝의 이미지는 진달래가 무성하게 핀 밭, 정체 모를 벤치 위, 혹은 창고와 같이 생긴 건물 기와 앞에 놓인 반사경 내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전혀 무관해 보이는 배경에 위치한 굴뚝의 이미지들은 작가가 프랑스에서 바라본 원래 굴뚝과 어떠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

작가는 이와 같이 동일한 이미지들이 그 맥락으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배경에 삽입된 경우를 ‘소외’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소외란 단순히 특정한 사회집단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대신 작가가 주장하는 소외란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이탈된 상태, 소위 ‘고향을 잃은 이미지’에 관한 것이다. 영어로는 자기 소외, 혹은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의 소외(*self-alienation*)에 해당한다.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특정성을 잃은 풍경들은 한편으로 새로운 내러티브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관객들은 사진이 찍혀질 당시 굴뚝의 상태, 그와 연관된 의미나 이야기들보다 전혀 새로운 환경에 위치한 굴뚝이 불러일으키는 의미나 새로운 상징성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휴대용 풍경은 돌아 갈 곳을 잃은 일종의 ‘미아’나 ‘고아’에 해당한다. 지나치게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변형되어 더 이상 그 근원을 잃어버린 고향 없는 풍경인 셈이다.